

20세기 상징적 패션 아이콘에 따른 아이템 연구

이 은 속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교수

A Study on the Fashion Item of the Symbolic Fashion Icons in the 20th Century

Eun-Sook Le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Ulsan

(2009. 12. 4. 접수; 2010. 1. 26. 수정; 2010. 1. 29.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shion item of the symbolic fashion icons in the 20th century. The symbolism of fashion icons was grouped into four classes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a social-cultural change.

1. Icons between dream and reality: A dreary emotion that was caused by material richness has a longing for an ideal image. A typical style was Art Nouveau style, which pressed into a grotesque S-bend. While as the world placed on a economic reconstruction after World War I, rational fashion icon which pursued more function and simplify than cumbersome style and complexity came out. 2. Icons between solid and liquid: A solid icons was connected with a mode of female body during World War I. This extremely stylized female figure. Flowing fabrics enveloped the stylized female figure and they brought a liquid icons into relief. 3. Icons between uniformity and variety: At a time when uniformity was appeared strongly within 20th century is during World War II and about 1940-1950. The uniformal icon was classified into uniformity by uniform and by mass production. A repugnance for the uniformity and imitation of fashion was tried a new fashion style. It could be called with the various of fashion icon. 4. Icons between social secession and rediscovery: In 1950-1960, 1970-1990, and the end of 20th century, the advent of the young culture was born a consumer who newly breaks in fashion. It could be included within the domain of social secession icon. While the rediscovery of fashion icon was associated with experimental new fibers, leotard, suitable replacement for wool or acrylic knit, silk that could stretch in any direction, new fabrics that were transparent, took color beautifully, and could be painted, tie-dyed, or embroidered.

Key Words: Fashion icons(패션 아이콘), Dream and reality(현실과 이상), A solid and a liquid(고체형과 액체형), Uniformity and variety(획일성과 다양성), Social secession and rediscovery(사회적 이탈과 재발견)

Corresponding author ; Eun-Sook Lee

Tel. +82-52-259-2843, Fax. +82-52-259-2843

E-mail : eunsook@ulsan.ac.kr

※ 본 연구는 2007년 울산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임.

I. 서론

20세기는 시대적 변화의 기복이 심했던 시기로 2차세계 대전, 세계적 대공황, 미·소 대립을 축으로 한 냉전체제, 에너지 파동, 정치 이데올로기의 퇴조, 밀레니엄 시대의 도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는 시대적 변화를 겪게 되면서 다양한 패션 스타일, 패션 이미지, 패션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 그리고 대중스타 등을 지칭하는 패션 아이콘의 공존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동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 효과는 분야에 따라 정도 차는 존재하지만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를 형성시키는 의미있는 사회문화적 아이콘을 탄생시키게 된다. 아이콘은 시대를 불문한 고정불변의 특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시대적 독특한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만큼 시대적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의 상업화를 촉진시키는 매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인 다양한 매스 미디어의 보급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아이콘을 대중들에게 신속하게 전파시킴으로써 아이콘은 공간을 초월하여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각 분야의 업체들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기획을 시도하게 되며, 특히 가시적 제품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패션은 사회적 트렌드에 민감한 제품으로써 얼굴형, 바디라인, 메이크업 등의 트렌드와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면서 다른 제품에 비해 보다 다양한 가시적 패션 아이콘들이 탄생되고 있다.

패션 아이콘은 특정한 역사적 순간을 생각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 전 시대의 디자인이나 스타일과는 차별화를 지을 수 있는 패션제품 자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을 창조해내는 디자이너, 독특한 디자인, 기묘한 디자인 방법, 새로운 구성기법, 유행패션, 패션이미지, 대중의 스타일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사람¹⁾ 등도 패션 아이콘의 주역이 된다. 이러한 대상들은 대상 자체가 지닌 차별화되는 특성이나 부여된 상징적 의미로 호칭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대적 환경을 상징하는 무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활용된다.

최근의 한 연구²⁾에서 휴대폰 광고에 등장한

트렌드 세터로서의 패션 아이콘의 역할이미지와 패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패션영역과 무관하다고 여겼던 제품영역에서도 패션 아이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패션 아이콘은 제한된 소비자 영역보다는 함축적 의미 전달에 익숙한 젊은 층을 포함한 다양한 층에서도 널리 적용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소비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타일과 디자인 등이 탄생되고 가치관, 사상, 라이프스타일 등의 의미적 상징성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소비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상징적 의미를 지닌 패션 아이콘들이 패션문화를 형성하고 유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영역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일환으로서 진행되었다.

20세기는 시대적 기복의 변화가 많았던 시기인 만큼 패션 아이콘의 대상이나 이슈가 다양하여 패션 스타일과 이미지가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하게 등장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는 21세기 패션 디자인의 영감 모티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판단되었다. 또한 20세기 패션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상징적 의미로 집약되고 이를 반영한 아이콘 탄생과 더불어 패션 아이템들은 유행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통하여 시기별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적 패션이슈, 패션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은 상징화될 수 있어 패션 아이콘 유형화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으로 패션과 관련된 아이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상징적 의미들 즉, 이상과 현실, 고체형과 액체형, 획일성과 다양성, 사회적 이탈과 재발견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아이콘 대상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와 유형화 기준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대에 따라 패션 아이콘의 대상이나 상징적 의미가 서로 변화될 수 있고 아이콘의 새로운 탄생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창출될 수 있음과 동시에 패션문화를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패션 관련업체에게는 패션 아이콘의 시대적 트렌드 흐름을 분석하거나 올바른 패션문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이를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20세기 사회적 배경과 패션 아이콘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패션 아이콘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비언어적 전달의 한 형태이며, 상징적 의미는 사회 안에서 조정되고 공유되는 것으로 수신자는 그 의미를 사회적 맥락에 의해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단순히 발신자의 개인적 욕구에 의한 의미 전달이 아니다. 상징적 의미는 복잡한 사회에서의 정체감과 지위에 대한 소집단의 욕구에 부응하기도 하며 사회적 정서와 공통의 신념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는 사물의 물질적인 형태에 있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물질에 부여되거나 발견될 때 변화될 수 있어 상징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의미되지 않으므로 항상 변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패션 아이콘은 특별한 상황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연상시키게 하는 이름을 갖게 되며 이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패션 아이콘은 대중의 의견에 의존하며 개인을 넘어서 집단 지배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패션 아이콘은 사회문화적 배경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황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호칭될 수 있다.

20세기는 제1, 2차세계대전을 전후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됨에 따라 사회 그 자체가 복잡해지고 산업기술이 현저하게 발달이 되고 다양한 하위문화가 만들어지면서 급격하고 끊임없는 변화가 생성되고 지속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주의, 주장, 구체화된 제 양식의 대립항쟁을 가속화시켜 다시 새로운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사회가 되었다.³⁾ 또한 20세기말은 새로 다가올 21세

기 밀레니엄 시대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서로 공존하는 현상을 유지하는 사회가 되면서 기계의 최첨단화에 밀려 극도로 현실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연에의 회귀와 옛것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첨단기술인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미래지향적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은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제1차세계대전 직전의 수년간은 1890-1910년간의 아르누보 스타일과 1907-1914년간의 좋은 시대로 명명된 벨 에포크 시대⁴⁾의 아르데코 스타일이 나타난 시기로 산업발달로 인한 물질적 풍요와 제국주의에 의한 영토확장은 외형적으로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인 것으로 보이게 했지만 이러한 상황의 허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실증주의적 사고와 인류사회의 진보를 믿는 낙관주의에 대한 반항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쾌락주의적 특성을 보인 유태주의와 퇴폐주의에 짓게 함으로써 사실적 표현이 아닌 암시적 표현과 절대 자유를 추구하는⁵⁾ 현실보다는 이상에 대한 동경심이 나타나게 되었다. 반면에 1914-1930년 제1차세계대전을 포함한 이 시기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 경제, 문화의 황폐를 재건하기 위한 현실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 분야 진출이라는 큰 변혁은 여성들의 패션을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변하게 하였다.⁶⁾ 따라서 제1차세계대전 전후 사회적 현상은 이상추구와 현실적응의 의미가 내재된 아이콘으로 대변될 수 있다.

한편 제1차세계대전 동안의 호된 내핍생활과 긴장, 그리고 억압된 생활에 대한 반발은 오히려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불러일으켜 전쟁전의 화려함, 여성스러움과 사치스러움을 동경하여 그들의 인체 특징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라인이 더욱 돋보일 수 있는 과장적 표현과 우아함을 추구하였다. 일부의 새로운 세계에 진출하려는 욕구는 여성스러움보다는 남성을 모방하려는 심리로 나타나면서 인체의 자유를 허용하는 단순하고 자연적인 형을 유행시켰다.⁷⁾ 제1차세계대전이라는 사건은 양면적 특성을 보였는데 수동적인 에로틱한 인체억압적 여성미와 단순하고 자연스런 유연미의 병행을 출현시킴에 따라 인체억압의 정도에 의해 형성된 외형적 실루엣은 고체형과 액체형

의 아이콘으로 대변될 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을 기점으로 1939-1950년경은 전쟁 중과 전쟁 후의 사회적 특징이 나타났다. 전쟁 중에는 전쟁으로 인한 일손 부족이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더욱 확대시킴에 따라 작업복 착용이 나타났고 작업복 형태의 의복이 일반화되자 옷차림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게 되면서⁸⁾ 실용적 스타일과 최소한의 옷감과 부자재를 사용한 디자인은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하였고 패션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적절한 가격의 편안한 캐주얼 위주의 단품을 생산하는 대량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오면서⁹⁾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디자인을 착용하는 획일성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대중들은 현실에서의 도피처로 영화에 도취하게 되면서 유명 여배우들의 매력과 이미지가 패션으로 배가되면서 이를 추종하고자하는 대중들의 욕구는 대량의 모조품을 탄생시키면서 패션의 획일화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쟁 후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는 풍부한 사회로 이끌었고 소비자 중심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획일화된 제품이나 모조품에 대한 싫증은 제2차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나타나면서 여러 유명 디자이너 작품에서 새로운 시도가 과립패션의 중심점 역할인 오프 꾸뛰리를 통하여 다양한 스타일로 창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은 획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아이콘을 등장시킴으로써 패션산업발전을 가속화시켰다.

1960년 이후 경제 번영은 젊은이들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켰고 영 패션(young fashion)의 시대로 지칭될 만큼 새롭고 중요한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과거의 소비계층이었던 기성세대와는 다른 소비형태를 보이면서 고정관념화된 사회로부터 이탈된 행동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물질만능과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에 대한 반항의식이 생겨 반사회적 성향과 반전운동의 기괴한 성향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사회로부터의 이탈된 경향이 나타났다. 새로운 소비시장의 등장은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이나 개인적 정체성에 초점을 둔 제품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덧붙여 과학기술의 발달, 신소재의 개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왔던 소재의 패션소재에 접목 등은 패션제품이나 디자인의 재발견을 촉구하

면서 패션의 무궁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20세기말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기성사회에 대한 사회적 이탈을 보인 젊은이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은 다양한 하위문화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젊은이들의 욕구에 맞는 제품생산은 이제까지 고정화된 인식에서 벗어난 제품의 재발견으로 연결되면서 다양성과 새로움을 제시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사회적 현상을 통하여 사회적 이탈과 함께 새로움과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재발견의 아이콘이 등장되었다.

이상을 통하여 각 시기별 사회문화적 배경은 집단의 특성이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들을 내재한 아이콘들을 등장시킴에 따라 20세기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반영한 상징적 의미들을 내재한 아이콘을 이상과 현실, 고체형과 액체형, 획일성과 다양성, 사회적 이탈과 재발견 4항목으로 유형화시켜 이를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패션 아이콘의 개념 및 대상

아이콘(icon)은 그림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eikoon’에서 파생된 것으로 오늘날은 컴퓨터상의 각종 프로그램, 명령어, 또는 데이터 파일들을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령을 문자, 기호, 그림을 만들어 화면위에 표시한 것이다. 아이콘은 대상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가능하게 하며 내용을 가장 대변하는 상징적인 표시로 지정되듯이 패션 아이콘 역시 당시의 유명한 패션디자이너와 예찬되는 의상과 더불어 개인 디자이너의 유행하는 컬렉션이나 패션산업에 기여한 기업의 패션제품, 기교한 수작업, 특이하거나 유행하고 있는 기술적 제작방법, 패션이미지, 대중스타 등이 범주대상으로서 패션역사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준다.¹⁰⁾

패션 아이콘은 혁명적인 패션이 주역의 대상으로서 특정한 역사적 순간을 생각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패션 디자이너와 패션에 한정되지 않으며 미술, 음악, 신(新)문화, 젊은이의 문화, 이국 그리고 개인 등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 패션 아이콘의 키워드는 생활전반에 영향을 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하며 사회적 현

상에 의해 발생된 신조어가 패션 아이콘으로 불려지거나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사건 등에 의해 파생된 상징적 의미가 패션 아이콘으로 대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로 사회문화적 요인, 사건 등에 의해 이슈화된 상징적 의미를 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상징화된 패션 아이콘의 아이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상과 현실의 패션 아이콘: 이상의 패션 아이콘은 현실세계가 필요로 하는 요인에 반영된 기능과는 상반된 특성을 말하며, 현실의 패션 아이콘은 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요인을 반영하고 나타난 아이콘을 지칭한다.

2) 고체형과 액체형의 패션 아이콘: 고체형의 패션 아이콘은 가장 억제된 인체의 움직임이 허용되거나 인체의 움직임을 극도로 제한시킨 딱딱한 의상 외형을 연출하는 것을 말하며 액체형의 패션 아이콘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의상형이 변하거나 새로운 장식이 연출되는 것을 지칭한다.

3) 획일성과 다양성의 패션 아이콘: 획일성의 패션 아이콘은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대중적 유행성을 띤 아이템의 등장을 의미하며, 다양성의 패션 아이콘은 개개인의 정체성이나 개성을 표출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의 등장을 지칭한다.

4) 사회적 이탈과 재발견의 아이콘: 사회적 이탈의 패션 아이콘은 기존의 사회에서 고정관념화된 패션이탈에 의해 파생된 현상을 의미하며, 재발견의 패션 아이콘은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패션에 접목시키거나 실험적 디자인 시도 등의 현상을 지칭한다.

III. 사회적 변화와 상징적 패션 아이콘의 아이콘

각 시기의 사회문화적 변화는 새로운 패션 아이콘의 탄생을 도출해내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20세기 역시 사회문화적 변화가 사건, 새로운 기술의 탄생, 새로운 사고 등에 의해 시기별로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패션 아이콘들이 등장되었다. 패션 아이콘의 아이템 대상 분석은 비슷한 시기 내에서 사회문화적 변화에 의해 서로 상반된 디자인 특성이 주는 상징적 의미, 이전의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 또는 이미지가 반영된 상징적 의미, 디자인 혹은 소재의 실험성에 의해 나타난 상징적 의미 등을 참고로 이상과 현실, 고체형과 액체형, 획일성과 다양성, 사회적 이탈과 재발견 4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상과 현실의 패션 아이콘

이상과 현실의 패션 아이콘 등장은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학혁명 및 제2차 산업혁명 시작과 더불어 제1차 세계대전 종식은 사회전반으로 이상과 현실을 추구하는 양면적 사회상을 공존하게 하는 경향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전반에 불어 닥친 과학혁명과 제2차 산업혁명은 기계문명이 파생시킨 물질주의에 대한 반항심과 문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믿는 현세 부정적 허무주의를 초래하면서 현실보다는 이상을 동경하게 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반면, 제1차 세계대전은 피폐된 사회와 경제를 남겼고 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사회는 현실적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적이고 단순한 실용적 요인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사회적 배경에 의해 파생된 결과는 두 개의 상반된 아이콘을 공존시킨 계기가 되었다. 하나는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에 의해 탄생된 물질주의는 인간의 생존과 안전한 삶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지만 그런 만큼 물질적 편향에 따른 인간의 정서적 문화의 박탈감, 인간 소외감, 이기주의 등에 노출된 인간들로 하여금 탈 물질주의적 가치 추구를 선호하게 하는 경향을 보이게 하였으며 이는 자연주의적 삶의 방법을 동경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움과 이상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아이콘을 유행시켰다. 이는 패션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현실세계에서 추구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욕구는 과거에 대한 향수와 동경으로 나타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인체의 생물학적 기능, 건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스타일 및 디자인을 그 범주로, 현실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이미지를 추구하는 패션 아이콘이 나타났다. 경제적 성취와 가시적인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물질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탈 물질주의의 영향은 이상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패션 아이콘을 탄생시켰고 이는 곡선적 스타일로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으로 인하여 사회 및 경제 재건이 사회적 관심으로써 거주장스럽거나 복잡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보았고 이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기능성과 단순화를 추구하는 실리성에 초점을 두면서 인체의 기능성을 강조한 패션 아이콘이 등장하게 되었다. 현실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실리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현실적 이미지가 추구되면서 곡선적 라인을 추구하는 이상적 이미지와는 달리 인간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적합하고 인체의 의학적 측면들이 고려된 스타일 및 디자인이 대상이 되면서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스타일로 상징화되는 현실적 패션 아이콘이 등장되었다. 이상적 이미지의 패션 아이콘의 대표 스타일은 아르누보 스타일(그림 1)로, 금세기 처음, 여성은 예복의 부유한 외장으로 감싼 듯한 그로테스크풍의 S-bend, 코르셋으로 쥘 가슴의 큰 곡선이 밖으로 밀려나올 것 같은 과장된 가슴선, 부채꼴의 스커트형, 매우 타이트한 긴 소매 혹은 비숍형 소매, 하이스탠드 칼라, 끈 끈, 리본, 턱, 프릴, 태슬 등의 트리밍, 과다한 장식으로 꾸며진 웨이브 머리위로 아슬하게 걸쳐진

모자 등이 어울리면서 나타났다. 이러한 스타일은 모든 여성의 신체를 장식적이고 치장된 물건같이 다루어졌으며, 영리를 추구하는 패션산업에 의해 더욱더 부추겨지면서 신체의 생물학적 기능은 전혀 고려되지 못할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치 못한 채 관능적이고 양식화적인 스타일인 S자형 실루엣 또는 아우워클래스 실루엣이 아이콘 대상으로 등장되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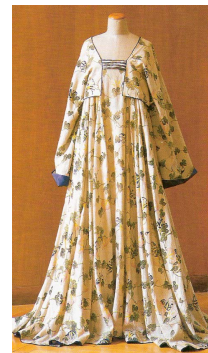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 19세기 중. 후반의 정교하고 공들인 의상, 신체를 압박하는 의상, 끈으로 졸여 맨 의상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의상개혁운동, 1850년경 뉴욕에서의 기능적인 의상에 대한 지지, 의상은 사회적이고 신체의 의학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 등이 형성되면서 패션은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 구조와 어울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패션 아이콘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운동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코르셋으로 부터의 해방과 함께 신체의 자유를 허락하는 혈렁한 천연소재의 의상이 트렌드 경향으로 나타났다(그림 3). 아르누보 스타일이 여성 인체의 곡선미를 살린 디자인 반면에 현실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능성과 실용성이 고려되지 못하였고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수행에 거주장스런 디자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현 사회에 적합한 의상의 현대화가 요구되어졌다. 의상개혁의 반영으로 나타난 현대화의 미적인 특징은 아르누보 디자인을 과감하게 탈피시킨 디자이너 Paul Poire



<그림 1> 아르누보 스타일
출처: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2009, p.345.



<그림 2> S자형 실루엣
출처: 신상옥, 서양복식사, 2006, p.284.



<그림 3> Koloman Moser, cotton crepe "rational" dress, 1905.
출처: Prestel, icons of fashion, p.17.

를 중심으로 인체 곡선의 타이트한강조로부터 해방된 여유로운 실루엣, 빛이 바랜 색, smocking, 주름, 자수 등이 이용된 새로운 디자인이 제시되었다. 즉, 둥글고 볼륨있는 가슴, 하이 웨이스트, 통이 좁은 스커트, 앞 혹은 뒤에서 죄는 긴 콜렛, 라운드형, 보트형, 사각형의 네크라인, 아담한 칼라, 길거나 7부 길이의 소매, 짧은 돌먼 소매, 끈 끈, 리본, 자수, 구슬 등의 트리밍, 큰 모자 또는 다소 작은 모자 등으로 조합되었다. 따라서 의상의 현대화는 건강, 사회적 역할, 거주 공간디자인 등을 고려한 현실적 디자인을 제시하였으며, 가슴, 허리, hips의 인체 곡선을 무시한 관형태의 실루엣으로 나타났다.¹¹⁾

2. 고체형과 액체형의 패션 아이콘

20세기 동안 여성의 신체형을 상당히 양식화시킨 시기는 의외로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에서 1917년 초까지 유럽에서 지배적인 kriegskrinoline (전시 중의 크리놀린)이 대표적 고체형 패션 아이콘에 속한다(그림 4). 고체형은 외부의 자극에도 형태 변형이 나타나지 않거나 유연적인 드레이프보다는 각이 지고 꺾인 듯한 변형이 특징으로, 이를 위해 사용된 아이템들의 예로써 층층의 페티코트는 폭이 넓은 스커트 형을 지탱하였고 부피가 큰 스커트는 코르셋과 함께 입혀졌고 페플럼은 재킷의 가장자리에 덧붙여졌으며 이는 엉덩이를 강조시키는 디테일로 사용되었다. 이 스타일은 경제적인 어려운 전시 중에

도 전통적인 여성신체의 특징을 인체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의상의 외형을 찌그러짐 없이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1920년대 중반까지 유행으로 지속되었다.¹²⁾ 이러한 드레스는 장갑처럼 꼭 맞아야 했고 몸을 움직이지 않거나 인체와 의상사이의 공간 내에서만 가장 억제된 움직임이 허용되었거나 심지어 인체의 움직임을 극도로 제한시킨 딱딱한 외형을 연출시켰다. 고체적 특성을 지닌 골격 드레스는 어떤 움직임에 의해 유연한 선을 만드는 찌그러뜨림이 아닌 각지고 꺾인 듯한 찌그러뜨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형상화시킨 의상들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디자인적 특징은 고체형의 패션 아이콘 대상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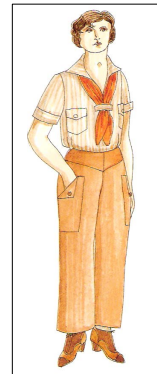
반면에, 여성 인체의 곡선과 여성성의 강조가 의상이 만들어내는 딱딱한 고형적인 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난이 1926년 독일의 여성 잡지(Die Dame) 기사에서 제기되면서 인위적으로 형상화시킨 고체형의 패션 아이콘 대상 아이템에 대한 반전으로 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표현을 구속하지 않으며 움직임에 자유로운 지배권을 부여하는 액체형의 패션 아이콘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기사에서는 여성은 남자다운 이미지를 보다 원하며 자유로운 움직임을 저해한 이전의 드레스 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 등을 게재함으로써 여성의 패션을 완전히 새로운 인식에 의해 정의되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였다.¹³⁾ 고체형의 패션 아이콘 쇠퇴와 액체형의 패션 아이콘의 등



<그림 4> Dartey, drawing depicting the "Wartime crinoline" silhouette, 1916. 출처: Prestel, icons of fashion, p.25.



<그림 5> evening wear(1925-1929) 출처: John Peacock, 20th century fashion, p.70.



<그림 6> 미국여성, 1930. 출처: John Peacock, The chronicle of western costume, p.186.

장은 사회적 비난 여론과 더불어 새로운 직물의 등장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레이스와 많은 꽃이 그려진 쉬폰, 얇은 명주 등으로 만든 의상들은 인체의 움직임에 저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드레이프는 의상내에서의 인체 자유로움을 가져다주는 아이টে็ม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으로 많이 이용되어졌다. 이러한 직물들은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스커트 디자인, 퍼프 소매, 엉덩이 주름장식을 탄생시켰으며 이외에 저지, 니트, 트위드 등의 흐르는 직물은 상당히 양식화되었던 여성 형상을 감쌌으며 신체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디자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액체형의 패션 아이콘은 이전의 균형과 좌우대칭의 고체형 디자인에 대비하여 불균형과 비대칭에 대한 새로운 선호가 가미되면서 생기와 긴장감으로 이어지게 하는 인체의 유동적 움직임을 허용하였다. 유연성을 가진 직물은 움직임에 따른 다양한 형태표현을 구속하지 않으며 움직임에 자유로운 지배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의 의상 직물로 사용되어졌다. 특히 새로운 직물의 등장은 인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강조하는 액체형의 패션 아이콘을 부각시키기에 충분하였다(그림 5).

이전의 딱딱한 신체형을 유지시킨 고체형 스타일은 디자이너 Coco Chanel을 통하여 위기를 맞으면서 액체형의 패션 아이콘으로 대체되었고 그의 의상 작품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였다. 액체형의 패션 아이콘의 흐름 속에서 그녀는 편안하고 심플하면서도 비싸지 않은 바지 디자인을 제안하여 대중들의 시선을 끌었으며, 1930년경에 발표된 통 넓은 바지는 인체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움직임에 따른 드레이프 형성은 유연성과 부드러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액체형의 패션 아이콘 유행을 더욱 확대시켰을 뿐 아니라 남녀 공용 스타일로서 복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되었다(그림 6).

3. 획일성과 다양성의 패션 아이콘

20세기 내에서 획일성이 강하게 등장된 시기는 제2차 세계 대전(1939-1945)과 미국의 뉴욕

문화의 영향력이 부각된 1940-1950년경으로, 유니폼에 의한 획일성과 대량생산에 의한 획일성으로 대변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과 함께 출현했던 전쟁 산업은 많은 여성들을 가정주부보다는 사회적 직업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갖게 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전까지는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접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갈망은 유니폼을 등장시켰다. 이는 집단소속 표현, 집단 내에서의 연대의식을 함양, 집단 밖에서의 직업·계급·역할 표현 등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획일적 성격이 강한 패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작업의 효율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이전의 재킷과 스커트 착용보다는 재킷과 바지의 착용은 공장 내 여직원의 가장 훌륭한 유니폼의 아이টে็ม이 되었다. 유니폼 유행을 가속화 시킨 메인부처(Mainbocher)는 미국 해군의 여성 유니폼과 적십자 유니폼을 디자인하여 의복의 기능성과 여성성을 잘 조화시킨 매력적인 군복이란 찬사¹⁴⁾와 더불어 유니폼의 선두자적 역할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럽의 영향을 받은 미국 문화가 1940년에서 1950년경까지 세계 예술의 센터로서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전까지 우아한 여성미의 상징이었던 파리를 대신한 뉴욕이 패션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할리우드 영화 속의 여주인공은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그들은 여주인공처럼 매력적이기를 바랐으며, 아름다움과 매혹에 대한 욕망은 좋아하는 스타의 패션과 보석류의 모조품으로 이어졌고 기성복과 액세서리의 대량 생산에 의해 만족하게 됨으로써 일반 여성들의 패션은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기보다는 대량생산에 의한 패션의 획일성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서 할리우드 여배우의 패션은 유행을 시킬만큼 대중적 지지도를 받았으며 대중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아드리안(Adrian) 디자이너는 1932년 Letty Lynton 영화에서 26세 여주인공인 조안 크로포드(Joan Crawford)를 위해 선보인 주름장식 소매의 하얀 드레스(그림 7)는 기성복 제조업자들에 의해 복제되어 5십만 벌 이상의 모조품이 팔렸다.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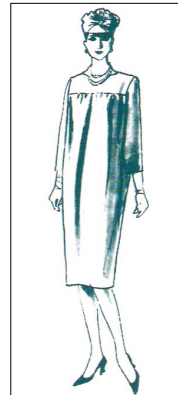
한 현상은 대량생산을 가능케 한 기계의 발달이나 기계 생산이 가능한 패턴개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대량생산 패션제품은 많은 대중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였고 패션은 더 이상 특권층이나 엘리트층의 전유물보다는 대중들의 손이 미치는 범위권에 들어오면서 패션의 획일성이 두드러졌다.

패션의 획일성과 모조품에 대한 싫증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나타나면서 여러 유명 디자이너 작품에서 새로운 시도가 1947-1957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새로운 시도는 획일적인 형태보다는 다양한 이미지의 스타일로, 강인한 인체 실루엣 표현보다는 꽃같은 여성스러운 인체 실루엣 표현으로 이루어지면서 1947년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데뷔 컬렉션에서 Corolle Line으로 선보여졌다. 이 컬렉션은 전적으로 여성을 위한 새로운 이미지를 테마로 가는 허리, 볼록한 가슴, 둥근 어깨, 완벽한 힙, 호화스러운 이미지, 플레어 스커트를 조합시킨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코르셋, 페티코트 등의 부활을 보였고 편하고 자유롭고 획일적이었던 여성 패션에 싫증을 느끼고 있었던 여성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를 시발점으로 1939년 아메리카 보그지에서 나타난 아워글래스 형태, 1945년 코르셋 드레스, 1949년 마르셀 로샤스(Marcel Rochas)의 뷔스티에 드레스(bustier dress)가 대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처럼 암울과 희망을 좌절시킨 전후의 분위기에서 등장한 새로운 패션은 대중들에게 꿈처럼 현혹

적이었고 모든 현세의 삶을 잊게 해 주는 청량제와도 같았다. 다양하고 꽃과 같은 자연스런 패션 아이콘을 위한 연출은 사틴, 명주, 견, 벨벳 등의 풍부한 직물, 자수, 풍부한 드레이프, 개더, 턱, 리본 등의 꾸밈리적 디테일 등으로 가능하였고 이는 억제와 제한의 시대로부터 자유를 주었다. 크리스찬 디올의 작품을 기점으로 새로운 패션이 등장되었는데 이 그룹에 속하는 디자이너로서는 자끄 파뜨(Jacque Fath)와 피에르 발만(Pierre Balmain)이 대표적이다. 자끄 파뜨는 그 시대에 유행하던 모래시계를 디자인 소재로 선택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하고자 했다. 즉 꼭 맞는 가슴, 들어간 허리, 둥근 허프, 패드 없는 어깨, 점점 가늘어지거나 완전히 늘어뜨린 스커트를 디자인하였고 남성위주의 액세서리들, wing collar, 넥타이, 단추 구멍에 꽃은 카네이션 장식 등을 유머스럽고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으로 여성복에 가미시켰다. 반대로, 피에르 발만은 스포츠 세계에서 영감을 얻은 “뉴 프렌치 스타일”을 제시함으로써 대중들에게는 신선한 새로움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새로움과는 또 다른 새로움을 추구한 디자이너는 크리스토폴 발렌시아가(Cristobal Balenciaga)로 전후 뉴욕 실루엣의 드라마틱함을 제거하는 허리선이 나타나지 않는 슈미즈 드레스와 섹(sack) 드레스(그림 8)를 선보임으로써 코르셋 록에 익숙해진 여성들에게는 쇼킹한 디자인으로 다가갔으며, 1958년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¹⁵⁾ 따라서 패션의 다양성은 여러 디자이너들의 실험적 시



<그림 7> www.imdb.com/title/tt0023132.



<그림 8> 발렌시아가의 섹드레스
출처: 신상옥, 서양복식사, p.316.

도를 통해서, 이전 디자인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모티브로 삼은 디자인 발상을 통하여, 남성적 디자인의 여성복 접목 등에 의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4. 사회적 이탈과 재발견의 패션 아이콘

패션의 사회적 이탈과 재발견은 1950-60년대, 1970-90년대,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특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회적 이탈은 1950년대 젊은 이들의 집단적 사회적 이탈과 1970-1990년대 개인적 목적과 독자적 라이프스타일을 지탱하기 위하여 집단으로부터의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 1950년대 즈음 역사상 처음으로 소녀를 위한 옷이 디자인되었고 “젊은이 문화”가 등장되면서 패션상의 새로운 이탈 소비자가 탄생되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십대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은 기성세대의 과거 십대에 비해 2배 정도에 달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소비자 시장으로 인정되었고 그들을 위한 의상매장이 전개되었다. 하위문화를 위한 패션시장의 탄생은 지금까지 패션문화를 한 문화로만 여겼던 개념에서는 이탈된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지금까지 기성문화 속에서 존재해왔던 젊은이들의 사회적 이탈은 기존의 기성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자신들의 생각과 외모가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구 등에 의해 비롯되기 시작하여 그들의 새로운 소비 힘은 음악이나 패션을 그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그들의 패션 아이콘 대상은 젊은 문화를 상징하는 젊은 할리우드 배우 말론 브란도(Marlon Brando), 반항적인 십대의 이미지를 구체화시킨 제임스 딘(James Dean), 그리고 록 앤 롤 슈퍼스타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로, 그들은 젊은이들의 갈망을 충족시키는 아이콘으로 등장되었다. 사회적 이탈로 수용된 젊은이 패션은 그 범주 속에서 다시 젊은이들의 감정, 존재감, 집단특성들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street style이라는 이탈적 패션이 부각되었다. 즉, 미국의 풍요로운 물질환경 속에서 보수화된 기성질서에 반발해 저항적인 문화를 추구한 비이트족(beatnik), 1963년 이후 런던 카나비 스트리트(Carnaby Street)를 중심으로 나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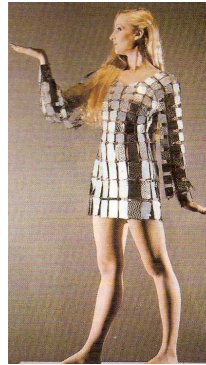
젊은 세대를 지칭한 모즈족(mods)¹⁶⁾(그림 9)과 록커족(rockers), 히피족(hippies)들의 street style이 사회적 이탈을 상징하는 대표적 패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이탈 패션인 street style 아이콘은 동일한 세대 젊은이들 간에서도 이질적인 차이를 가져왔고 이러한 분위기는 사회적 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이탈이 반영된 패션 아이콘과 더불어 기존의 패션 아이템 디자인이나 소재의 재발견이 이루어졌다. 메리 쿼트(Mary Quant)는 여성들의 허벅지 노출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시기에 혁신적인 미니스커트 고안, 비옷의 소재로 PVC 사용, 통상적인 여성용 핸드백을 손잡이가 긴 손가방으로 고안하는 등 기존의 디자인 틀에서 벗어난 실험성을 추구하였다. 그녀의 디자인에 대한 재발견은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냈다. 아방가르드풍의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탱(Pierre Cardin)은 짧은 길이의 딱딱한 선의 슈프트 드레스를 제안하면서 로봇과 같은 이미지를 창조하였다.

1970-90년대 사회적 이탈은 집단으로부터 이탈된 개인주의, 위계질서 파괴,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비구조적 디자인, 1974년 미국인 작가 Tom wolfe가 말한 ‘Radical chic’ 즉, 빈곤층은 그들의 신분이 드러나보이는 초라한 의상대신에 정장을 요구하였고 부유층들은 오히려 캐주얼한 옷차림과 빈곤층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중고 의상을 찾음으로써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기존과는 거리가 먼 의상을 착용하여 비난과 조롱으로 이어졌다. 이는 계층 간의 위계질서의 무너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디자이너 장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남자다움과 여성다움의 상투어를 파괴한 남녀 동권주의자 개념에서 패션을 구체화시켰다. 남녀혼용의 유니섹스 모드, radical chic, retro chic, 민속풍, 핑크 트렌드로 표현되었다.

패션 아이콘의 재발견은 1950-60년대, 1990년대 이후 주로 소재에서 나타났다. 1950-60년대 사회적 이탈로 주목받았던 스트리트 패션에 사용된 소재는 모든 연령층을 위한 active wear에 활용됨으로써 소재사용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는데 영향력을 미쳤다. 댄서용이나 체조용의 레오타드, 수영복, 스키복, 싸이클복 등의 울 니트,



<그림 9> 모즈룩
출처: <http://blog.naver.com/heechang95/100054979920>



<그림 10> 파코라반 작품: 손목에 팔찌로 점점 가늘어지게 한
긴소매와 알루미늄 조각으로 만든 미니의상
출처: Françoi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432.

저지 사용, 바디 슈트의 다목적 용도에 활용된 라이크라의 여성복 소재 접목 등은 새로운 소재 실험이었다. 대표적 디자이너는 파코 라반(Paco Rabanne)으로 체인이나 금속 조각으로 만든 갑옷같은 의상(그림 10)이나 정상적인 소재에 메탈릭 장식 혹은 매우 큰 칼라를 장식한 의상을 제작하는 등외에도 크리스탈 비즈, 셀룰판 조각, 조약돌, 단추, 타조깃털, 플라스틱 조각 등을 장식용으로 사용하였다.¹⁷⁾ 클레어 맥카델(Claire McCardell)과 루디 게른라이히(Rudi Gernreich)의 레오타드를 사용한 의상을 비롯하여 신축성 소재, 천연가죽과 거의 비슷하고 폭이 넓은 인조 가죽에 대해 높은 평가가 입증된 시기로 기존에 사용된 소재의 대체품들이 실험적으로 이용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얻음으로써 소재의 재발견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는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 등이 존재하는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할 준비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는 하이테크와 더불어 기술의 비인적 성향에 대한 반동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산뜻하고 친근한 느낌의 인성을 강조하는 하이테크/하이터치(high-tech/high-touch)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합성섬유의 새로운 기술 발전에 의해 가능한 패션의 맑고 투명함이 유행되었고 디자이너들과 아티스트들은 더 이상의 신체 노출이 강조된 디자인보다는 새로운 투명성을 실험하였고 투명한 소재가 패션의 성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소개되었다. 레이스는 아름다운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고 투명한 소재

위에 트레이퍼 되면서 새로운 미적 의상을 다양하게 창조하였다. 디자이너들은 금속과 같은 빛의 발광, 스트레치 같은 새로운 소재로부터 그들의 영감을 얻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소재 기술의 진보는 의상의 표현을 더욱 발전시키는 시기로 간주되어졌다.

IV. 결론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동이 나타난 20세기는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를 내포한 패션 아이콘의 공존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패션 아이콘의 사회적 영향력은 디자이너의 창의적 활동에서부터 패션산업의 활성화 등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효과는 지대하다. 20세기에 나타난 패션 아이콘은 시기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의미있는 상징성을 등장시켰고 이상과 현실, 고체형과 액체형, 확일성과 다양성, 사회적 이탈과 재발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시대별 사회적 현상에 의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고 4개로 분류한 상징적 패션 아이콘에 대한 사회적 현상과 이를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과 현실의 패션 아이콘은 산업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 종식에 따라 나타난 물질주의와 사회 및 경제 재건에 의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물질주의는 경제적 풍요로움에서 오는 인간의 정서적 문화의 박탈감을 가져왔고 이

는 이상을 동경하게 하여 패션에서는 곡선적 스타일을 등장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식 후 사회는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인체의 기능성을 강조한 현실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패션 아이콘이 등장되었다.

둘째, 고체형과 액체형의 패션 아이콘은 제1차 세계대전 중부터 1930년경에 나타난 특징이었다. 여성의 신체형을 상당히 양식화시킨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나타난 고체형 패션 아이콘은 인체와 의상사이의 공간 내에서만 가장 억제된 움직임이 허용되었다. 새로운 직물의 등장은 고체형 패션 아이콘의 쇠퇴를 촉진시키면서 불균형과 비대칭에 대한 새로운 선호가 유행되면서 생기와 긴장감으로 이어지게 하는 신체의 유동적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하는 액체형의 패션 아이콘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셋째, 획일성과 다양성의 패션아이콘은 제2차 세계 대전(1939-1945)과 뉴욕문화의 영향력이 부각된 1940-1950년경으로, 여성의 사회적 직업 구성원 진출은 유니폼 착용을 유행시켰고 할리우드 영화 속의 여주인공에 대한 여성들의 선망은 스타의 패션과 보석류의 모조품으로 이어졌고 기성복과 액세서리의 대량 생산에 의해 만족하게 됨으로써 일반 여성들의 패션은 대량생산에 의한 패션의 획일성으로 나타났다. 패션의 획일성에 대한 싫증은 패션의 다양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여러 디자이너들의 실험적 시도를 통해서, 이전 디자인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모티브로 삼은 디자인 발상을 통하여, 남성적 디자인의 여성복 접목 등에 의해 나타났다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사회적 이탈과 재발견의 패션 아이콘은 1950-60년대, 1970년-1990년, 20세기말에 나타난 특징으로, 1950-60년대 역사상 처음으로 소녀를 위한 옷이 디자인되었고 “젊은이 문화”가 등장되면서 패션상의 새로운 이탈 소비자가 탄생되면서 지금까지 기성문화 속에서 존재해왔던 젊은이들의 사회적 이탈은 하위패션문화를 형성하였다. 1970-90년대 사회적 이탈은 집단으로부터의 개인이탈과 여성들의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다양화, 비구조적, 남녀혼용의 유니섹스 모드를 소개시켰다. 1950-

60년대 패션 아이콘의 재발견은 소재에서 나타나면서 현시대의 사회적 이탈로 주목받았던 스트리트 패션에 사용된 소재는 모든 연령층을 위한 active wear에 활용됨으로써 소재사용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는데 영향력을 미쳤다. 뎀서용이나 체조용의 레오타드, 수영복, 스키복, 싸이클복 등의 울 니트, 저지 사용, 바디 슈트의 다목적 용도에 활용된 라이크라의 여성복 소재 접목 등의 새로운 소재들은 기존에 사용된 소재의 대체품들로 이용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얻음으로써 소재의 재발견이 이루어졌다. 1990년 이후는 다가올 21세기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이 공존하는 특징을 나타내면서 전통패션의 카테고리는 무의미해졌고 상상의 21세기 미래 표현은 하이테크 화학적 소재와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센스 소재 등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각 시기의 사회적 현상은 독특한 패션 아이콘을 등장시켰고 패션 아이콘은 디자이너의 디자인 표현방법, 작품특성, 패션 트렌드, 패션 아이템, 소재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각 시대를 구분짓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동시대의 서양과 한국의 시대별 패션 아이콘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http://news.chosun.com/site_data/html_dir/2009.02/17.
- 2) 전혜정, 하지수 (2008). 광고에서의 패션 아이콘의 역할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22-223.
- 3) 이정옥 외 2인 (2000).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p.379.
- 4) 정홍숙 (2009).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411.
- 5) Ibid, p.338.
- 6) 배수정 외 9인 (2008). *현대패션과 서양복식*

- 문화사; 서울: 수학사. p.292.
- 7) 이정옥 외 2인 (2000). Op. cit., p.387.
 - 8) 배수정 외 9인 (2008). Op. cit., pp.318.
 - 9) 정홍숙 (2009). Op. cit., pp.381-382.
 - 10) Gerda Buxbaum (2005). *icons of Fashion*.
New York: Prestel. p.13.
 - 11) Douglas (1983). *Costume History and Styl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p.412.
 - 12) Gerda Buxbaum (2005). Op. cit., p.25.
 - 13) Ibid., p.32.
 - 14) 신상옥 (2005).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p.306.
 - 15) Ibid., p.316.
 - 16) Douglas (1983). Op. cit., p.512.
 - 17) François Bouche r(1987).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p.433.